



비제조업 지수 및 민간부분 고용 개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의 비제조업(서비스업) 지수가 9월 55.1을 기록하여 8월 53.7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으며, 시장 예측치인 53.2 보다도 높게 나타남.

- 신규주문 건수가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활동 지수 및 제품가격 지수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.
- 미국 경제의 90%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, 소매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경기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표 호조가 미국 경제에 좋은 신호이기는 하나 2012년 2월 ISM 지수가 57.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함.

■ 한편, 미국의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ADP의 9월 민간부문 고용이 16만 2,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다운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3,000명 보다 9,000명 많은 수치임.

-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 고용이 일제히 증가한 가운데,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14만 4,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14만 5,000명, 대기업에서 1만 7,000명 증가함.
- 이 지수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수(비농업부문 고용자 수)의 선행지표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고용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.
- 단,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8%대에 머물고 있으며 8월의 수치도 약 2만 9,000명 하향 조정되어 고용시장을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, 10/4)